

1102(수) 요한복음 13-15장 길, 진리, 생명이신 예수

<율법>하면 딱딱하고 엄격한 느낌이 들지만,
본래는 오경(토라) 즉, <하나님의 말씀>을 가리킵니다.
법 개념보다는 이야기 혹은 가르침에 더 가깝지만,
에스라/느헤미야 때 율법 준수를 워낙 강조하다보니
마치 법조문처럼 간주 된 측면이 있습니다.

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을 보여주었습니다.
히브리어로는 할라카, <걷는다 하>할라크>는 뜻으로
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며,
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. 왕대일
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<길>과 같았습니다.
(시119:103-105)

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에 무지하여
율법을 제대로 알지도, 지키지도 못했습니다(7:19,8:19).
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(1:18, 5:37, 7:16,28-29, 14:7,31)
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.
예수님만이 진리와 뜻을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.
(8:31-32,44, 14:31, 15:15,18:37).

“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(14:6, 이름❷)
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”

하나님은 진리의 영,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입니다.
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
주의 법을 깨닫고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.
(14:17-21, 15:26, 16장, 갤36:25-27)

나는 예수 길을 걷고 있습니까?
❶ 주님이 보이신 길/진리/생명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?
❷ 내가 내비게이션 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?